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미 정부 섣다운 여파로 왜곡된 통계 속에 미국 인플레이션 2.7%로 낮아져
- Bloomberg: 미국 국채, 11월 이후 첫 주간 수익 상승세

[미국 금융]

- CNBC: 미국 재무부 채권 수익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 소폭 상승

[인공지능]

- WSJ: OpenAI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추진 — 기업가치, 최대 8,3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유럽중앙은행(ECB),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금리 현재 수준 유지 가능 — Wunsch 발언
- Yahoofinance: 미 상원의원, 카르텔 연루 연료 밀수 문제로 유조선 운송사 7곳 압박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Citadel, 천연가스 투자 실패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익률 기록할 전망

[미국 경제]

WSJ: Inflation Eased to 2.7% in Report Distorted by Government Shutdown

미 정부 섣다운 여파로 왜곡된 통계 속에 미국 인플레이션 2.7%로 낮아져

-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2.7%로 낮아지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수치보다 낮아진 것이며, 시장 예상치도 밑도는 결과다.
- 다만 이번 물가 지표는 연방정부 섣다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통계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통계국(BLS)은 섣다운 기간 동안 일부 가격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이전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측한 가격으로 대체했고, 조사 시점이 늦어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가격이 반영된 품목들도 포함됐다.
-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수치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실질적인 물가 안정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미국중앙은행도 이번 지표를 정책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상적으로 수집된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실제 흐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지표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Bloomberg: US Treasuries Head for First Weekly Gain Since November

미국 국채, 11월 이후 첫 주간 수익 상승세

- 미국의 국채(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가 이번 주에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 수익률이 오른 방향으로 마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데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여러 번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보통 국채는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번 주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방향,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비슷하게 낮아졌다. 이런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이런 변화는 최근 나온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료나 노동 시장 신호가 물가와 고용이 완전히 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고, 그 기대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이번 주에는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yields inch higher as investors digest cooler inflation data

미국 재무부 채권 수익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 소폭 상승

-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수익률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지표를 소화하면서 조금씩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미래 금리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온 영향이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최근 발표에서 전년 대비 약 2.7%로 전보다 낮아졌지만, 정부 섣다운 때문에 일부 자료가 누락돼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투자자들은 이 물가 지표를 보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이번 수익률 상승은 크게 상승한 수준은 아니고 점진적인 움직임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데이터가 왜곡됐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히 반응하고 있다.

기사

[인공지능]

WSJ :OpenAI's New Fundraising Round Could Value Startup at as Much as \$830 Billion

OpenAI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추진 — 기업가치, 최대 8,3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 OpenAI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받으려 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 가치는 최대 8,30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비상장 기술 기업 기준으로 는 거의 역대 최대 규모다.
- 이번 투자는 OpenAI가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 등 성장 계획을 위 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부펀드와 큰 투자 기관들이 참여를 검토 중이며, 일 부 투자는 이미 확정됐다. 예를 들어,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3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디즈니와 10억 달러 규모 콘텐츠 계약도 체결했다.
- 하지만 투자 라운드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목표 금액을 모두 모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투자 조건과 참여자도 바뀔 수 있다.
- 시장에서는 OpenAI의 빠른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렇게 큰 투자금이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는 걱정도 있다. AI 기술 경쟁과 글 로벌 확장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 이번 투자 라운드는 AI 산업과 글로벌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ECB Can Keep Rates on Hold If Outlook Materializes, Wunsch Says

유럽중앙은행(ECB),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금리 현재 수준 유지 가능 — Wunsch 발언

-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 전망이 실제로 맞아떨어질 경우, 당분간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ECB 관리들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대한 최신 전망을 토대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ECB는 최근 기준 금리를 2%로 그대로 유지했고, 이번 발표에서도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즉각 결정하지 않았다. 유럽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ECB 목표치인 약 2% 부근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ECB는 현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다.
- 다만 전망이 항상 현실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주요 ECB 관계자들은 경제와 물가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결정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일부는 추후 데이터에 따라 인하 혹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사

Yahoofinance: Exclusive-US senator presses tanker giants over cartel-linked fuel smuggling at sea

미 상원의원, 카르텔 연루 연료 밀수 문제로 유조선 운송사 7곳 압박

-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멕시코 카르텔과 연관된 연료 밀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주요 유조선 운송사 7곳에 서한을 보냈다.
- 그는 불법 연료 운반과 통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으며, 2026년 1월 10일까지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회사들은 범죄 혐의로 기

소되지 않는했으나, 이번 조사는 국제 석유 운송과 마약·연료 밀수 연결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Citadel Heads for Lowest Gain Since 2018 as Gas Profits Fall 시타델 (Citadel), 천연가스 투자 실패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익률 기록할 전망

-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Citadel)이 올해 천연가스 투자에서 손실을 내며 연간 수익률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채권, 신용, 퀀트 전략에서는 수익을 냈지만, 천연가스 부문의 부진이 전체 성과를 끌어내렸다.
- 이번 결과는 시타델이 원자재 중심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투자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